

# 조선독립창가와 일본창가의 상관성 고찰

## - 『최신창가집』과 『보통교육창가집』을 중심으로 -

김 경 인\*

本稿では、1911年、間島に設立された〈光成中学校〉にて、音楽教科書として1914年7月に編纂された『最新唱歌集』の意義と構成を分析し、その唱歌ら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曲であり、日本唱歌とどのような関わりを持つかを顧みたいと思う。それから日本唱歌との関わりを考察するに当たって、1910年に日帝の統制下で編纂された『普通教育唱歌集』をその比較テキストと設定し、その中でどの唱歌らが植民地初期の愛国・独立唱歌の集大成と言える『最新唱歌集』に再収録され、それらの曲調がどのように借用されたかを具体的に比較考察しようとした。その結果、『普通教育唱歌集』の15曲の唱歌が、『最新唱歌集』に再収録されたり、その曲調が借用されたり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そういうことで、『最新唱歌集』の152曲の内、合計27曲の唱歌(約18%)が『普通教育唱歌集』の影響を受けたと言える。本研究を通して、もう一つ確認できたことは、日本の体系的な軍歌である「勇敢なる水兵」や「敵は幾万」、儀式唱歌である「紀元節」などが、朝鮮民族の愛国・独立精神涵養のための歌詞を持つ唱歌らに借用されていたことである。以上の結果から言えるのは、日帝が朝鮮人を植民化するために教育していた唱歌を、愛国・独立精神を涵養するための唱歌として利用したことを、朝鮮民族の反撃の知恵であったという事である。

キーワード : 独立唱歌、最新唱歌集、普通教育唱歌集、日本軍歌  
(독립창가, 최신창가집, 보통교육창가집, 일본군가)

## 1. 들어가며

1872년 일본의 학제반포 이후 불리기 시작한 일본창가는, 일본이 을사조약(1905)을 기점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이래 일본의 교과서 유입과 새로운 편찬을 통해 조선의 음악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일제의 창가교육이

---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찬송가와 더불어 일본의 창가 및 군가가 조선에 유입되어 '애국·독립창가'로 차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906년 학교의 교육제도가 일본식으로 개편되면서 그간에 불렸던 '애국·독립창가'가 수록된 책들이 1909년의 <출판법> 제정과 동시에 발매금지되거나 압수폐기처분 되는 등, 그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직전까지 학교령의 개정과 더불어 변화하는 식민지정책에 걸맞게 편찬된 창가 및 음악교과서들이 조선의 음악교육을 점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음악교육에 대한 일제의 그러한 강압 속에서도 '애국·독립창가'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초기에는 찬송가와 일본의 창가 및 군가의 차용에 힘입어, 그리고 한일병탄 이후에는 일제의 교육창가 활용과 더불어 조선의 사립학교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음악창작활동과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애국·독립창가'들이 보존된 음악적 사료가 사실상 거의 현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사료가 1914년 만주의 광성중학교에서 대한제국 말기부터 한일병탄 직후까지 불리던 '애국·독립창가'들을 수집하여 편찬한 『최신창가집』<sup>1)</sup>인데, 이 역시 1915년 8월 치안을 이유로 발매금지 처분된 이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가 1996년 국가보훈처에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있는 것을 발굴하여 복사를 거쳐 책으로 간행한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현재 『최신창가집』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경찬(1997)<sup>2)</sup>이나 최순배(2001)<sup>3)</sup>의 연구와 같이 『최신창가집』 자체에 대한 구성과 곡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것과, 노은희(1997)<sup>4)</sup>와 강환직(2010)<sup>5)</sup>의 연구와 같이 일제식민지

1) 국가보훈처(1996) 『最新唱歌集附樂典』 이하, 『최신창가집』이라 함

2) 민경찬(1997)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pp.348-391.

3) 최순배(2001) 『항일운동기 창가의 연구 - 『최신창가집』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pp.54-56.

4) 노은희(1997) 『일제시대의 음악교육정책 -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음악과 석사논문, pp.81-87.

5) 강환직(2010) 「조선총독부 민족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국악과 교육』 제29집.

기를 전후한 음악교육의 흐름 속에 위치한 『최신창가집』의 음악적 및 민족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특히 노은희는 만주의 민족학교의 음악교육에 사용되었던 『최신창가집』이 일본음악의 영향을 다수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통제 하에 있었던 조선 내 학교교육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자명하다며 오늘날 우리 음악문화에 남아있는 식민교육의 잔재청산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적 자본이 지극히 미비했던 일제식민지 초기에 조선의 민족지도자들이 일제 및 외래의 음악적 자본을 빌려 애국·독립적 내용의 창가에 인용했던 것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최신창가집』 자체가 갖는 민족역사적 의의는 물론이고 음악적 특징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창가 중 다수가 어떤 식으로든 일본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독립창가들이 일본창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최신창가집』의 구성과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 창가들이 영향을 받았을 대표적인 창가집으로 당시 일제에 의해 편찬된 유일한 교육창가집이었던 학부(學府)편찬의 『보통교육창가집』(1910)을 설정하여 이 두 창가집이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써 식민지기 초기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이용했던 창가가 조선의 애국·독립창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최신창가집』의 의의와 구성

1911년 만주에 설립된 광성중학교(光成中學校)는 ‘학생들에게 현대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獨立精神과 愛國思想을 교육하여 후일 祖國獨立을 쟁취할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학교다. 학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목 중 '체육'과 더불어 '창가'시간을 배정하고 창가교재로 1914년 7월 『최신창가집』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일병탄을 전후하여 불렀던 애국·독립창가들을 집대성한 창가집으로,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완전한 애국·독립창가집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간도 총영사관의 대리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가 외무대신 남작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앞으로 제출한 '最新唱歌集 發賣禁止に關する件'이라는 서류에 따르면 『최신창가 집』은 '排日鮮人學校光成中學校に於て發行'한 것으로 '배일적 내용뿐으로 심히 불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발매금지를 요청한다고 되어있다.<sup>7)</sup> 이 내용만 보더라도 『최신창가집』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신창가집』은 어떤 곡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있는가?

『최신창가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서양음악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문답형식으로 실어놓은 '음악문답' 부분이 앞에 나오고, 구한말부터 1914년 무렵까지 불렀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창가들을 악보와 함께 적은 '창가집'부분이 뒤이어 나온다.

앞부분에 실린 '음악문답'은 크게 ①總論 ②音符論 ③拍子論 ④音階論 ⑤音程論으로 분류되어 음악이론의 기초부터 오르간 및 기악까지 문답식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창가집'에는 152곡의 창가가 수록되어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창가집에 수록된 곡들을 재수록했거나 당시 구전되던 창가들을 음악전문가가 악보와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부편찬(1910)의 『보통교육창가집』과 김인식(1912년)이 편찬한 『교과적용 보통창가집』의 곡들이 현재로서는 재수록 확인이 가능한데,<sup>8)</sup> 민경찬(1997)에 의하면 이상준 편찬의 『최신창가집』(1918)과 『최신중등창가집』에 수

6) 신용하(1987) 「解題 島山 遺品 『舊韓末 愛國唱歌集』」 『한국학보』vol.13, 일지사, pp.212-213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의 유품으로 「구한말 애국창가집」(가칭)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표지부터 8면까지와 31면 이후가 떨어져나가 있어 명칭은 물론이고 간행연도 역시 1905~10년으로 추측될 뿐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함.

7) 구양근(1995) 「독립군의 항일노래모음 『최신창가집』」 『민족문제연구』vol.8, 민족문제연구소, pp.7-8 참조.

8) 『보통교육창가집』은 27곡 중 13곡(곡조차용까지 포함시키면 15곡)이 『교과적용 보통창가집』은 31곡 중 20곡이 『최신창가집』에 재수록 됨.

록된 곡들이 이 창가집에 상당수(총21곡) 수록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최신창가집』의 발행연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sup>9)</sup> 광성중학교의 『최신창가집』에 '四二四七年 七月 二五日 發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발행연도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일병탄 이후 심화된 일제의 출판에 대한 규제와 탄압으로 애국·독립창가를 수록한 다른 창가집들이 거의 대부분 압수·폐기되었기 때문에 다른 창가들의 정확한 출처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최신창가집』이 갖는 특징과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첫째가는 특징은 역시 '애국애족의 메시지를 담은 애국·독립창가가 많다'는 것이다. 수록된 창가들을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최신창가집』 수록곡 주제별 구분

| 구분       | 곡명(같은 곡명의 곡수)  | 합계(%)   |
|----------|--|---------|
| 애국<br>애족 | 갈지라도, 거국행, 건원절(2), 격검, 격양, 경성(2), 고향, 공부, 국가(2) 국기, 국민(2), 국심(國心), <sup>10)</sup> 군(軍), <sup>11)</sup> 깊이생각, 권학(4), 단군, 단심, 대한소년기개, 대한훈, 독립, 동지, 동주상제, 묘선훈, 맹진, 모험맹진, 민충정공 추도, 병식행보, 보국, 복수회포, 석음(措陰), <sup>12)</sup> 수절(守節), 시유변천, 애국(8), 야구, 영웅모범, 영웅추도, 예수군병, 우승기, 운동(8), 의무, 자유(2), 전진(2), 정신, 조상을 위해, 조국생각, 죽어도 못노아, 청년특심, 청년학우, 체육, 학도(3), 학생애국, <sup>13)</sup> 학생전진, 학생추도, 한반도, 혈성대(2), 희망, 환영(2) | 84곡(55) |

9) 민경찬(1997)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p.68 참조. 민경찬은 1914년 이전에 이상준의 다른 창가집이 있었거나, 먼저 작곡하여 불리던 자신의 곡들을 후에 『최신창가집』(1918)에 수록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10) p.122에 수록된 곡인데, 목차에는 누락되어있음.

11) 악보만 있고 노랫말은 없음. 이에 대해 앞의 책 '해제'에 신용하 교수는 '가사가 명확치 않아서 후일 가사를 만들어 獨立軍의 창가로 활용하려고 曲만 수록해 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라고 적고 있음

12) 128페이지에 수록된 「학도(114)」와 곡조는 다르지만 같은 가사의 창가임.

13) 『최신창가집』의 목차에는 '학도(산높고물맑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                     |   |         |
|---------------------|---|---------|
| 일상<br>생활<br>및<br>기타 | 경부철도, <sup>14)</sup> 기차, 농민, 농부, 도기(朝起), 등산(2),<br>망향, 소제(掃除), 수학여행, 시계, 신년, 심주(心舟),<br>我的 학교, 我的 가정, 유희진행, 입은하나, 인택(仁<br>宅), <sup>15)</sup> 자장, 직업, 책지세(責地勢), 태평양행, 쾨넵<br>버스, 행선(行船) | 24곡(15) |
| 자연                  | 가마귀(2), 귀안, 관물생심, 너름의 자연, 불여귀, 사<br>시경, 사절, 성(星), 소천(小川), 양춘가절, 엽(葉),<br>월(月), 작대(作隊), 추경(秋景), 춘유(春遊), 춘조,<br>해(海)  | 18곡(12) |
| 효와<br>우정            | 감은, 고별, 만나생각, 부모은덕, 사의 은(2), 상사, 선<br>우, 작별, 졸업(3), 친양은덕, 표의, 학우, 효효(效孝)  | 16곡(11) |
| 역사<br>지리            | 강해(江海), 관동팔경, 모란봉, 세계지리, 제국력사,<br>제국디리, 청산  | 7곡(5)   |
| 기념일                 | 국문창립기념일, 단군기념, 학교기념   | 3곡(2)   |
| 합계                  | 152곡  | 100     |

위의 표를 보면 애국애족에 대한 창가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도」와 「운동」 그리고 「권학」를 애국·독립창가로 분류한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의 창가가 신체를 단련하고 학문을 닦아 애국하고 나라독립에 힘쓰자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야구」 역시 대표적 애국·독립창가로 꼽을 수 있다. 이 「야구」는 한때 「소년남자가」로 불리기도 하였는데,<sup>16)</sup> 이는 원래 우리나라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의

제목이 「학생애국」으로 표기되어 있음

14) 최남선의 「경부철도」 1절만을 실고 있는데, 대부분의 창가들은 아무리 절수가 많은 것이라도 전곡을 실고 있는 것에 비해 가장 마지막 곡으로 그 1절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15) 『최신창가집』의 '해제'에서 신용하 교수는 이 곡에 대해 '이 책에는 「仁宅」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약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薛聰이 지은 「朝鮮古歌」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口傳하는 것을 편자가 채록하였을 터인데, 1편의 짧은 古歌라도 귀중한 우리로서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어 이 곡의 중요성을 짐작케함.

16) 1909년 7월 21일자 『황성신문』에 '유학생 야구단에서 금일 하오 4시에 운동을 행하난대 소년남자라는 운동가를 용하니 기사와의 활발함이 금인감축이기 좌에 특재하노라'라는 기사와 함께 노랫말을 실고 있음.

작사에 의해 대성학교 운동가로 불리던 창가였다고 한다.<sup>17)</sup> 직접 그 예를 살펴보자.

1. 대한청년 학생들이 동포형제 사랑하고  
우리들의 일편단심 용감하게 맹약하세  
화려하다 우리강산 사랑롭다 우리동포  
자나깨나 잊지말고 속히광복 하옵세다
4. 잊지마세 잊지마세 애국정신 잊지마세  
상하귀천 무론하고 애국정신 잊지마세  
편할때와 즐거울때 애국정신 잊지마세  
우리들의 애국성을 죽더라도 니글소냐  
〈후렴〉  
학도야 학도야 우리 주의는  
삼천리 강산에 댈혼강토를  
도덕을 비우고 학문을 넓혀서  
우리학생들이 광복합세다

〈『최신창가집』 「학도」(33)18〉

1.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다랗네 다다랗네 우리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다랗네
3. 충렬사의 끝난피 순환 잘되고  
독립군의 파다리 민활하도다  
벽력과 부월이 당전하여도  
우리난 조금도 두려움 없네  
〈후렴〉  
만인대덕 연습하여 우리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목덕 아닌가

〈『최신창가집』 「야구」(19)〉

17) 송혜미(2007) 『한국개화기 창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pp.29-30 참조.

18) 이하, 『최신창가집』의 창가는 「제목」(수록된 순서)의 형식으로 표기함. 밑줄 필자, 이하 동일.

다음은 『최신창가집』의 42번째 곡으로 수록된 「운동」인데, 이는 1908년 4월 24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평양의 학교연합에서 제정한 「운동가」를 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한자를 한글로 대부분 표기하고 있고 몇 군데 가사를 바꿔 적고 있을 뿐이며 절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비교를 위해 평양의 「운동가」와 함께 그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대한민국 만세에 부강기업은 | 大韓國 萬歲에 富強基業은   |
| 국민을 교육함에 전히잇도다    | 國民을 教育함에 전히잇도다  |
| 우리는 덕을 닦고 지혜길너서   | 우리는 德을 닦고 智慧길너서 |
| 문명의 선도자가 되어봅시다    | 文明의 先導者가 되어봅시다  |
| 2. 사회상 직책을 감당하려면  | 社會上의 職責을 堪當하려면  |
| 체육의 완전함이 필요하도다    | 體育의 完全함이 必要하도다  |
| 용감한 정신으로 뛰어나가서    | 勇敢한 精神으로 뛰어나가서  |
| 동모들과 같이 활동해보세     | 동모들과 같이 活動해보세   |
| 6. 한반도 테국에 영광돌니고  | 韓半島 帝國에 榮光돌니고   |
| 우리학교 명예를 일층빛내세    | 우리學校 名譽를 一層빛내세  |
|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 學徒야 學徒야 青年學徒야   |
| 독립정신 애국성을 분발하여라   | 忠君心 愛國性을 너지말지라  |
- 〈『최신창가집』 「운동」(42)〉      〈평양의 「운동가」〉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평양의 「운동가」가 1907년 4월 26일자 『황성신문』에 소개된, 학부가 당시 유행하던 민족주의적 운동가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하여 각 학교들의 연합운동회 때 부르게 했다는 「운동가」를 1년여 뒤에 일부 수정하여 만든 창가라는 것인데, 학부의 「운동가」보다 가사의 내용을 평이하게 고친 것과 가사를 잘 정제하고 축약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9)</sup> 이는

19) 김병선(2007) 『창가와 신시의 형성연구』 소명출판, pp.133-141 참조. 비교를 위해 학부의 「운동가」(1907)의 가사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大韓帝國 光武日月 富強安泰는/國民教育 普及함에 專在社息일세/우리닐은 德會을 닦고 知能發上하여/文明開化 先導者가 되어봅세다//社會上의 許多事業 勸當하려면/內部外體 健康함이 一大淸福은/工夫흐때 工夫하여 學問鍊習코/運動흐때 運動하여 血脈流通케(생략)

『최신창가집』의 창가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던 창가들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상 세 편의 창가, 특히 밑줄 친 부분을 비롯한 노랫말들을 보았을 때 「운동」 등의 창가들이 애국애족의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불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나 우정을 노래한 창가와 자연을 노래한 창가들에게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에 대한 애뜻함과 독립을 바라는 굳은 의지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곡들이 많다. 그 예로 두견새를 노래한 「불여귀」의 가사를 살펴보자.

1. 공산명월 야삼경에 슬이우난 두견새는  
소래소래 불여귀라 고국산천 생각하고  
도라가기 지원이라 저달빛이 질때까지  
목에피가 마르도록 야몽송 불출하니  
두견새야 무려보자 네에넥시 누구인지
4. 불여귀 불여귀하니 네소래가 슬으고나  
만리소풍 대운날에 평화주의 홀노품고  
적장군 영적한후 대한만세 부르다가  
捕獲中에 함낙하여 외토고혼 화작하니  
고국산천 못잊어서 그와 우깃나냐

〈『최신창가집』 「불여귀」(68)〉

이상에서 『최신창가집』에 수록된 창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았는데, ‘東海물과 白頭山이 말으고 달토록/한아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萬歲’로 시작되는 현재의 애국가와 같은 노랫말의 「國歌」를 필두로 「國旗歌」, 「乾元節」과 같은 의식창가에서 이 창가집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장가」<sup>20)</sup>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가들이 애국애족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20) 앞의 책 본문의 창가집 146번째 곡으로 「자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3절의 가사는 이렇다. ‘장하다 자장자장 얼른소학교/장하다 자장자장 벌써중대학/방사동이 되고 영웅동이 되어라/우리나라 광복사업 에아라 자장’

이상의 애국애족의 주제를 가진 곡들 중 「갈지라도」 「건원절」 「권학」 「대한흔」 「동지」 「애국」 「운동」은 1910년 5월 20일 학부가 편찬한 『보통교육창가집』에 게재된 곡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 곡조를 차용하여 가사를 붙인 것인데, 다음 장에서는 이 『보통교육창가집』이 어떤 창가집이며 『최신창가집』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 3. 『최신창가집』과 『보통교육창가집』의 상관성

『보통교육창가집』은 1910년 5월에 편찬·보급된 이래, 한일병탄 후 조선총독부가 『新編唱歌集』을 편찬하게 되는 1914년 3월까지 관공립학교의 창가교육에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된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자신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선의 식민지화에 성공하여 조선의 국권은 물론이고 교육권까지 모두 자신들의 권력 하에 두고 강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조선의 반발을 염려하여 사립학교의 애국 및 항일적 교육에 그나마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왔던 일본은, 한일병탄을 기점으로 그러한 민족적 사립학교의 폐교와 교과서 압수 및 폐간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 또한 학교교과서는 당연히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일본어교과서로 대체되는데, 창가교과서만은 당분간 『보통교육창가집』이 사용되게 된다.

이 『보통교육창가집』에는 모두 27곡의 창가가 수록되어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의 창가를 우리말로 번안하거나 개작한 것들이다. 그 전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雁, 月, 달, 紙鳶과 팽이, 時計, 兎와 龜, 蝶, 移秧, 工夫, 나아가, 學問歌, 四節歌, 漂衣, 갈지라도, 親의 恩, 師의 恩, 善友, 學徒歌, 植松, 四時景, 春朝, 勸學歌, 農夫歌, 修學旅行, 公德歌, 運動歌, 卒業式

그런데 잊지 말아야할 것은 『보통교육창가집』이 한일병탄 이전에 출판된 것인 만큼 조선의 식민지화를 꿈꾸는 일제의 야욕을 노골적

으로 표현하지 못했으리라는 점과, 당시 애국·독립창가들이 창궐 하던 것을 막기 위해 학부가 서둘러 편찬한 창가교과서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기존의 곡들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재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sup>21)</sup> 편찬된 것이어서 대중적이고 용이한 창가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징 덕분에 식민지기 초기의 애국·독립창가 집대성이 라 할 수 있는 『최신창가집』에 절반에 가까운 15곡의 창가가 고스란히 재수록되었거나 그들의 곡조가 다른 애국·독립창가에 차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15곡의 창가의 기본 출처를 알아보고 그 곡들이 『최신창가집』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일본의 창가가 ‘애국·독립창가’로 혹은 적어도 미래의 독립운동가 양성을 위해 그대로 불렀거나 곡조가 차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통교육창가집』이 일제의 조선식민지화에 대한 야욕으로 일본 자국의 음악적 정서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음악적 자본이 절대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의 의도와는 별개로 일본창가의 재사용과 곡조차용은 어쩌면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래 <표 2><sup>22)</sup>는 『최신창가집』에 재수록되었거나 곡조가 차용된 『보통교육창가집』 창가의 제목과 출처를 나타낸 것이다. <비고>는 그 곡조만을 차용하여 부른 『최신창가집』의 창가제목들이다.

21) 『보통교육창가집』 ‘例言 三’의 ‘本書는 學校에서 教授할뿐 아니라 家庭에서 使用 亦可할이라’

22) 이는 박은경(2001) 「学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 연구」 천안외국어대학논문집 창간호와 민경찬(1997)의 앞의 책, pp.348-391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 〈표 2〉 『보통교육창가집』 창가의 재수록 및 곡조차용곡

\*( )안은 『최신창가집』에 수록된 순서

| 재수록 및 곡조차용곡 | 출 처  | 비고   |
|-------------|--|--|
| 月           | 『國定小學讀本 唱歌集』 상권(1904)의 제 2곡인 「オツキサマ」의 곡조, 한국어가사는 일어독본 2권에 실린 것을 번역함. | 가마귀(76)  |
| 時計(138)     | 『國定小學讀本 唱歌集』 상권(1904)의 제 9곡인 「とけい」의 곡조에 한국어가사는 일본어가사를 약간 개작하여 번역함.   |  |
| 工夫(131)     | 『小學唱歌集』 초편(1881) 제 15, 16곡의 곡조에 한국어가사를 붙임. 「四節歌」와 곡조유사.              |  |
| 四節歌(100)    | 「工夫」와 유사한 곡조로, 『小學唱歌集』 초편(1881) 15, 16곡에 실린 곡임. 가사는 다름.              |  |
| 漂衣(23)      | 『教科適用 幼年唱歌』(1900)에 실린 「うらしまたろう」의 곡조와 유사. 가사는 다름.                     |  |
| 갈지라도 (91)   | Lowel Mason(1792~1872)의 곡조를 차용한 일본의 찬송가의 곡조를 재차용함.                   | 권학(5)<br>동지(6)<br>애국(74)<br>졸업(84)                       |
| 師의 恩 (135)  | 같은 제목의 일본문부성 창가는 많지만, 곡조와 가사는 다름.                                    |  |
| 善友(134)     |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문부성창가 「南朝五忠臣」의 곡조로, 한국어 가사는 『國語讀本』 제8권 제12과의 내용을 약간 개작함.  |  |
| 學徒歌         | 『地理教育 鐵道唱歌』(1900)의 제2곡인 多梅稚작곡의 「鐵道唱歌」의 곡조에 한국어 가사를 붙임.               | 운동(42),<br>운동(44),<br>가마귀(75),<br>조상을 위해(81),<br>학도(114) |
| 四時景(98)     | 작곡자 및 작사자, 출처 미상   |  |

|          |   |                                   |
|----------|---|-----------------------------------|
| 春朝(145)  | J.P. Webster(1819~1875) 작곡의 「Sweet by and by」라는 찬송가의 곡조를 차용한 일본의 『高等小學唱歌 第一學年』 상권(1906)의 창가를 차용함. | 만나생각(10)                          |
| 勸學歌(89)  | 1895년 일본에서 유행한 「勇敢なる水兵」라는 군가의 곡조를 차용. 『教科適用 大捷軍歌』(1895) 제3곡. 가사는 다름.                              |                                   |
| 修學旅行(90) | 『新編 教育唱歌』제4집(1896) 제19곡의 곡으로, 일본어 가사를 약간 개작하여 번역함.  |                                   |
| 運動歌(101) | 작자미상, 4/4박자, G장조, 요나누키 장음계  | 대한훈(9),<br>건원절경축(60),<br>학교기념(48) |
| 卒業式(95)  | 『小學唱歌集』초편(1881)의 제20곡인 「螢の光」의 곡조로, 『尋常小學唱歌 第3學年下』(1906)의 「わかれの歌」에 차용됨.                            | 국가(1)                             |

『보통교육창가집』의 15곡의 창가들이 어떤 식으로 『최신창가집』에 이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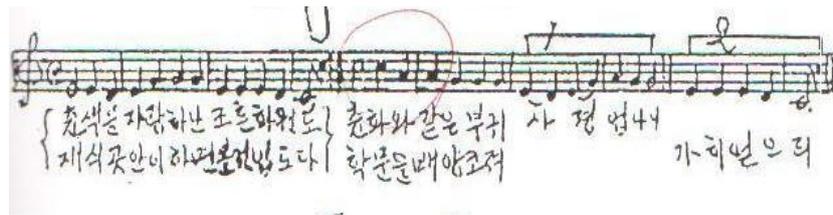
① 그대로 재수록한 곡 : 「時計」「工夫」「四節歌」「漂衣」「師의 恩」「善友」「四時景」「春朝」「勸學歌」「修學旅行」

② 재수록 및 곡조를 차용한 곡 : 「갈지라도」「運動歌」「卒業式」

③ 곡조만 차용한 곡 : 「月」「學徒歌」

재수록한 ①과 ②의 곡들 중에는 특히 배움을 강조하는 곡들이 많은데, 학문을 권한다는 뜻의 「勸學歌」는 말할 것도 없고 촌음을 아껴 공부하자는 「時計」「工夫」, 심지어는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하자는 「運動歌」까지 궁극적 목표를 공부에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고(師의 恩) 좋은 벗을 사귀으로써 현인군자되자(善友)는 내용 등, 그야말로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창가들로 애국·독립창가집인 『최신창가집』에 고스란히 재수록되는 데 있어 전혀 손색이 없는 곡들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수록한 『최신창가집』의 곡들이 『보통교육창가집』의 그것과 가사와 악보 상의 표기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악보에서 원곡(여기에서는 『보

통교육창가집』)과 다소 다른 부분이 눈에 띄고, 가사 역시 가능한 한 한자 대신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악보의 「四節」(100)이다.



그 가사의 1절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春色을 자랑하난 조흔 花園도 春色을 자랑하난 조흔 花園도  
 栽植곳 아니하면 볼것 업도다 栽植 곳 안이하면 볼것 업도다  
 春花와 갓흔 富貴 私情업느니 춘화와 같은 부귀 사정 업나니  
 學問을 培養코야 피히 어드리 學問을 배양코야 가히 얻으리  
 <『보통교육창가집』「四節歌」> <『최신창가집』「四節」>

악보를 보면 16마디의 곡을 되돌이표도 없이 10마디 안에 모두 담아낸 것과, 가사 역시 대부분 한글로 바꿔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3절의 '어려서 工夫하기 헝혀 쉼셔라/자라셔 事業하기 어려우니라'를 『최신창가집』에는 '어려서 공부하기 행여 슬어셔/자라셔 사업하기 어려우니라'로, 또 '勞苦를 不憚하고 豫備함이 지를 '로고를 불선하고 예비함이지'로 잘못 표기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신창가집』을 편찬할 당시의 음악적 환경의 열악함을 또 한 번 절감할 수 있는데, 지면을 아끼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기존의 곡들을 필사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가사와 악보를 받아 적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곡은 『보통교육창가집』 제 27과에 수록된 「卒業式」이다. 「卒業式」은 원래 1881년 일본에서 출판된 『小學唱歌集 初編』에 제 20곡 「螢の光」라는 제목으로 실린

곡과 곡조가 같은데, 「螢の光」는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인 「Auld Lang Syne」의 곡조를 차용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곡조를 다시 『尋常小學唱歌 第3學年下』(1906)의 「わかれの歌」에 차용하였는데, 이 창가집은 『新編教育唱歌集』과 더불어 1906년부터 실시된 조선의 음악교육에 사용된 최초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卒業式」은 「わかれの歌」를 재수록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한 「卒業式」이 『최신창가집』에서는 「卒業」이라는 제목으로 95번째에 실려 있으면서, 동시에 첫 곡으로 실린 「국가」에 그 곡조가 차용되고 있다. 다만 박자가 전혀 다른데 「卒業式」이 4분의 4박자인 데 비해 「국가」는 8분의 4박자로 되어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p>1. 螢の光、窓の雪<br/>書讀む月日、重ねつゝ<br/>何時しか年も、すぎの戸を<br/>開けてぞ今朝は、別れ行く</p>   | <p>반딧불과 창가의 하얀 눈<br/>책 읽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br/>어느새 세월은 지나고 이 문을<br/>열면 오늘 아침은 이별이구나<br/>(小)「螢の光」</p>     |
| <p>1. 동창에 공부하던 우리 학우들<br/>세월이 여류하여 오늘 당했네<br/>보내는 자 가는 자 피차 나뉘<br/>석별하는 회포는 가이없도다<br/>(보27)「卒業式」/(최95)「卒業」</p> | <p>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br/>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br/>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br/>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br/>(최1)「국가」</p> |

참고로 이상의 「국가」 가사는 현재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와 4절 모두가 거의 동일한데,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가 미상으로 되어있는 만큼 이상의 「국가」 역시 '작사자 미상'의 상태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애국가 작사자 후보로 여러 명의 민족열사들이 거론되었지만 특히 윤치호설과 안창호설이 강력한 대립구도를 이루며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작사자가 누가 됐든 이상의 가사를 가진 「Auld Lang Syne」곡조의 애국가가 처음으로 불려진 시기를 1896년 12월로 보는 견해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 한데, 안익태가 애국가의 곡을 완성시킨



두 곡의 가사내용을 비교해보면 「학도가」는 「권학가」와 마찬가지로 학문을 갈고 닦자는 내용의 창가인데, 이 곡조를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 「운동」(42, 44)의 내용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국 만세와 부강기업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가마귀」(75)는 『尋常小學讀本唱歌』(1910)에 실린 「鳥」를 가사까지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 곡의 곡조 역시 『보통교육창가집』의 「학도가」의 곡조와 같고, 『최신창가집』 114번째 곡인 「학도」에도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보표난 87頁가마귀가와 同』이라고 표기됨). 참고로 이 「학도」(114)는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패종을 들어보시오'로 시작되는 곡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이 처형당한 1910년 3월 이후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국민가요처럼 널리 애창되었으며, 같은 해 5월 학부가 편찬한 『보통교육창가집』에도 같은 제목의 「학도가」가 있음에도 이 곡(114)이 계속 불렀다고 한다.<sup>23)</sup> 이상의 두 「운동」과 「조상을 위해」는 4분의 4박자로 4분의 2박자인 「학도가」나 「가마귀」(75), 「학도」(114)와는 리듬과 박자에서 차이가 날 뿐, 곡조는 모두 『地理教育 鐵道唱歌』(1900)의 제2곡인 오노 우메와카(多梅稚)작곡의 「鐵道唱歌」와 같다.

이상의 검토 결과, 독립창가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최신창가집』에 실린 창가들 중 모두 27곡(약18%)이 학부편찬의 『보통교육창가집』의 창가를 재수록하였거나 그 곡조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군가의 영향을 받은 『최신창가집』의 창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립창가 중에는 일찍이 찬송가 뿐만 아니라 일본군가의 곡조를 차용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勸學歌」인데, 이 창가는 『보통교육창가집』에 게재되었을 때부터 이미 일본군가를 차용한 대표적 창가로 알려진 곡이다. 그런 창가가 독립창가의 모음집인 『최신창가집』에도 89번째 곡으로 고스란히 재수록되어 있다. 이 곡은 1895년에 발표된 대첩(大捷)군가로 청일전쟁에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함의 정세

23) 박찬호(2009)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pp.36-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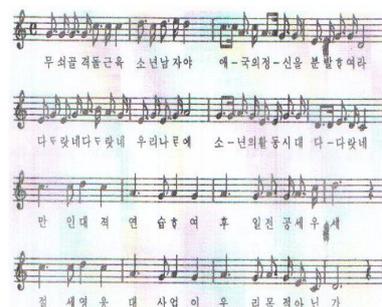
를 물었다는 3등 수병인 미우라 도라지로(三浦虎次郎)의 용맹무쌍함을 노래한 「勇敢なる水兵」라는 군가의 곡조를 차용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소년남자가」, 즉 1909년 황성신문에 '留學生 野球團에서……少年男子라는 運動歌'라며 「야구단 운동가」로 소개된 창가가 『최신창가집』에는 「야구」(19)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수록되어있는데, 이 창가의 곡조는 일본의 대표적 군가 중 한 곡인 「敵は幾万」의 곡과 많이 유사하다.

「敵は幾万」은 소설가인 야마다 비묘(山田美妙)가 1886년 발표한 시 「戰景大和魂」에 고야마 사쿠노스케(小山作之助)가 곡을 붙여 1891년에 『國民唱歌集』에 발표한 군가로, 태평양전쟁 중에는大本營(大本營)발표의 육군관계 테마곡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sup>24)</sup> 그러한 「敵は幾万」과 거의 비슷한 곡조를, 『최신창가집』에서는 「야구」외에도 「의무」(52)와 「운동」(94)과 같이 애국적 내용을 담은 창가에 차용하고 있다.<sup>25)</sup>



〈「敵は幾万」〉



〈「야구(19)」〉

「敵は幾万」과 「야구」의 악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4) 長田暁二(1970) 『日本軍歌大全集』 全音楽譜出版社、p.69 참조.

25) 민경찬(1997) 앞의 책, p.355, 364, 376에 따르면 '이상준 작곡, 이상준이 편찬한 『最新唱歌集』(1918)과 『最新中等唱歌集』(1922)에 수록된 〈運動家〉와 같은 곡. 그런데 일본의 小山作之助 작곡·山田美妙 작사의 〈敵は幾万〉(1891)라는 군가와 거의 비슷함'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이상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첫 소절만 약간 다를 뿐 이후의 곡조는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근대음악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했던 이자와 슈지(伊澤修二)가 작곡하여 일본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 2월 11일에 제창하던 의식창가 「紀元節」의 곡조가 『최신창가집』에 고스란히 차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민족단결을 노래하는 「단군기념」(93)과 조선의 여름날씨에 일제를 물리칠 조선소년을 빗대어 노래한 「여름의 자연」(102)에 그 곡조를 차용하고 있다.

다음은 『新編唱歌集』(1914)에 실린 「紀元節」<sup>26)</sup>과 「단군기념」의 가사이다.

- |  |   |
|--|---|
| 1. 천대만대에 걸쳐 흔들림 없이<br>나라의 근간을 세우셨네<br>드높은 위광을 우리러보며<br>축하하라 모든이여, 오늘 이날을 | 1. 굳은마암 한갈같은 각방사람이<br>우리성조 크신빛에 모혀들어서<br>아모거나 같이하자 맹세하던날<br>김뽕으로 노래하여 송축합세다 |
| 2. 천지간에 구분없이<br>천황의 권세 정해졌네<br>멀고먼 그 옛날을 사모하면서<br>축하하라 모든이여, 오늘의 축일을     | 2. 꺾침없난 어진바람 사해에불고<br>녹지안은 은혜이슬 팔역의받아<br>영원히큰 참복락이 보편하던날<br>김뽕으로 노래하여 송축합세다 |
|  | 〈「紀元節」〉   |
|  | 〈「단군기념」〉  |

「紀元節」은 비록 군가는 아니지만 일본군가 못지않게 제국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일본의 의식창가라는 점, 그러한 의식창가의 곡조마저 조선의 민족정신과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내용의 창가에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독립창가들이 일제 식민교육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그 잔재라고 일축하기보다는, 당시 조선국민에게까지 교육되었을 일본의 의식창가를 대신하여, 이미 귀에 익숙해졌을 그 곡조를 차용하여 만든 독립창가를 전파함으로써 그 창가가 담고 있는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내용이 국민의 뇌리에 보다 쉽게 각인될 수 있었으리라는 장점을 고려

26) 김순전 외 편역(2013) 『초등학교 창가교과서 대조번역 上』 제이앤씨, p.49 인용.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창가집인 학부편찬 『보통교육창가집』(1910)에 게재된 창가들 중 15곡과 군가를 비롯한 일본의 몇몇 창가들, 즉 일본제국주의적인 정서와 색채가 강한 창가들을 애국독립창가로 재수록하거나 그 곡조를 차용하여 재창조한 『최신창가집』의 창가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 자료의 미비로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본의 노래를 애국·독립창가로 이용한 사례가 이밖에도 수없이 많을 것임은 이상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이상으로 일제의 감독 하에 있던 학부(學部)가 ‘지방 각 사립학교에서 편술하는 불량(不良)의 창가(唱歌)를 勿施(勿施)케 한다’<sup>27)</sup>는 목적으로 출간되었던 『보통교육창가집』의 창가들이 애국·독립창가의 집대성인 『최신창가집』에 재수록되거나 그 곡조들이 차용되었음을 확인해보았다. 이로써 일제의 출판 및 교육에 대한 탄압과 엄격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적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던 식민지기 초기의 조선에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부르던 애국·독립창가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日帝가 ‘불량한 창가’를 견제하고 조선인을 식민화하기 위해 만들고 가르쳤던 창가들을,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애국·독립창가로 재창조하여 불렀던 식민지기 당시 조선민족의 ‘반격(反擊)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창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가 역시 조선민족의 독립창가로 차용되어 불렀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제가 당

27) 황성신문(1910.1.9)은 ‘지방 각 사립학교에서 편술하는 불량(不良)의 창가(唱歌)를 勿施(勿施)케 한다함은 屢報(屢報)한 바이어니와 교육에 관하여 普通(普通)의 唱歌(唱歌)를 학부에서 目下(目下) 편술중이라더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음.

시 애국·독립창가들을 압수·폐기해버린 관계로 그를 뒷받침해줄 자료들이 지극히 미비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일본 내에 보존되고 있는 『최신창가집』을 찾아낸 것처럼 앞으로 역사적인 사료들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여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독립창가와 그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들의 확인 또한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텍스트

국가보훈처(1996) 『最新唱歌集附樂典』  
 학부편찬(1910) 『普通教育唱歌集 第一輯』 한국정부인쇄국인쇄

## 참고문헌

- 강환식(2010) 「조선총독부 민족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국악과 교육』제29집, 한국국악교육학회, pp.7-30.
- 구양근(1995) 「독립군의 항일노래모음 『최신창가집』」 『민족문제연구』 vol.8, 민족문제연구소, pp.7-8.
- 김병선(2007) 『창가와 신시의 형성연구』 소명출판, pp.133-141.
- 김순진 외 편역(2013) 『초등학교 창가교과서 대조번역 上』 제이앤씨, p.49.
- 노은희(1997) 『일제시대의 음악교육정책-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음악과 석사논문, pp.81-87.
- 민경찬(1997)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p.68, pp.348-391.
- 박은경(2001) 「学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 연구」 천안외국어대학논문집 창간호, pp.499-519.
- 박찬호(2009)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pp.36-37.
- 송혜미(2007) 『한국개화기 창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29-30.
- 신용하(1987) 「解題 島山 遺品 『旧韓末 愛国唱歌集』」 『한국학보』vol.13, 일지사, pp.212-213.
- 최순배(2001) 『항일운동기 창가의 연구 - 『최신창가집』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pp.54-56.
- 長田曉二(1970) 『日本軍歌大全集』 全音楽譜出版社、p.69.

성 명(한 글) : 김 경 인

(한 자) : 金 鏡 仁

(영 문) : Kim, Kyoung-In

논문영어제목 :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ga(唱歌)  
of Patriotic-independence' of Choseon and Japan  
Shoka(唱歌) - Revolve around 『Choisin chang-ga Jib  
(最新唱歌集)』 and 『BotongGyoyuk Chang-ga Jip(普  
通教育唱歌集)』 -

소 속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E-mail : dodokaibi@naver.com

투 고 일 : 2014년 1월 9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